

# 드론예술공연 '꽃심, 나르샤' 첫 선

### 전주시, 7일~14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서 미디어아트쇼 전주정신 '꽃심' 드론·미디어아트 등 첨단기술로 승화 전북도민 대상 50% 할인·단체관람시 균일가 적용 등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동안 국립무형유산원 열쑤미루 대공연장에서 드론기반 미디어아트쇼인 '꽃심, 나르샤'가 공연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씨티데이즈와 (주)네온테크의 합작으로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주관으로 실시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정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래 1년여 노력 끝에 관객들을 정식으로 맞게 됐다.

이와 관련 공연관계자는 이번 공연의 핵심 주제는 전주정신 '꽃심'을 이루는 4개의 정신인 대동·풍류·울골음·창신으로, 이들 4개 주제의 전통예술에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드론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융합,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여 첨단 미래 기술과 전주만의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환상적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을 매료시켰다고 4일 밝혔다.

만의 신개념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시의 노력이 드론 예술공연이라는 새로운 전주형 4차 산업으로 결실을 맺게돼 매우 기쁘다"며 "전주의 문화예술이 드론과 함께 어우러져 연출되는 환상적인 공연 분위기에 빠져 즐기도록 많은 분들이 보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문화예술 장르에서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

/송효철 기자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동안 국립무형유산원 열쑤미루 대공연장에서 드론기반 미디어아트쇼인 '꽃심, 나르샤'가 공연된다.



이웃이 이웃을 보살피는 전주형 동네복지 정착을 돕는 제7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수사례 학습에 나섰다.

## 이웃이 이웃을 보살피는 전주형 동네복지

### 전주시, 지사협과 민관협력 우수지역 벤치마킹 실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방문 향후 추진방안 등 논의

이웃이 이웃을 보살피는 전주형 동네복지 정착을 돕는 제7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수사례 학습에 나섰다.

제7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 공공위원장 김승수 시장·민간위원장 백종만 전북대 교수)는 4일 위원 30여명이 민관협력 우수지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사협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을 방문했다.

이날 전주시 지사협 위원들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광산구 지사협의 운영사례를 청취하고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향후 발전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위원들이 이날 방문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광산구 지사협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

며 나눔으로 정의를 세우고, 복지 공동체를 꽃피우며 주민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추진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또, 광산구 지사협(민간위원장 김춘석)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무국과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21개의 동 협의체를 운영, 운영사례를 배우려는 타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광산구 지사협은 △하안남개 프로젝트(생리대 지원) △평원야동 돌봄서비스 사업 △광산복지학당 △공공복지상담센터 운영 등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상반기 징수실적 최우수기관 선정

###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 지방세 2743억 징수로 전년대비 484억·징수율 0.6% 증가 특별징수기간 운영·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체납처분 전개

전주시는 전북도 주관 2018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별결과 2017년 하반기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국내 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납부 홍보 및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 시 산하 전체 세무담당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484억이 증가한 2,743억을 징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에 역점을 둔 직무교육과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 등을 발굴, 체납자의 재산 또는 채권의 압류, 부동산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현장징수활동을 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도세, 시군세 징수율과 전년대비 세수신장률 및 타시군 번호판 영치 실적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군을 선발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서 건물 방수작업 중 작업자 3명 질식

어제 오후 1시5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건물 신축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해당 건물 지하에서 아스팔트 콜타르를 벽면 방수 작업을 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조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작업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작업자 중 2명은 의식이 있어 스스로 지하에서 탈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 신원 파악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 이운택, 보석 신청 "공정한 재판 위해 풀어달라"

### "여론몰이로 죄인 만들어놓고 수사" 주장 6년간 단원 8명 상습적 강제추행 등 혐의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운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자신의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감독 측은 "연극배우가 마이크 없이 발성하기 위해선 복식호흡을 해야 한다. 힘을 쥐서 소리 내라고 발성을 지도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정치인 보좌관 사칭 역대 취업사기 60대 검찰 송치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을 사칭해 역대 취업사기를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사기 혐의로 오모(6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6년 5월 A(52·여)씨에게 아들과 딸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6200만 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1월 같은 수법으로 B(63)씨에게도 7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오씨는 당시 한 정당의 당대표 보좌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유혹을 하던 그는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여담 대표 보좌관으로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돈을 조금만 쓰면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오씨는 자신이 소개한 지인의 한 아들이 전북지역 한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을 알려 의심을 피했다.

하지만 해당 채용은 오씨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정치인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이 없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